

# KRIVET Issue Brief

2020

187호

발행인 나영선 | 발행일 2020년 6월 16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## 한국의 세대 내 사회이동 유형과 결정요인

- 한국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의 세대 내 사회이동은 진입 초기의 소득과 이후의 소득변화 궤적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.
- 각 유형을 비교하면 노동시장 진입 초기 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소득증가 정도도 더 크게 나타나, 경제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격차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됨.
- 개인은 남성일수록, 원가정 소득이 높을수록, 교육수준이 높을수록, 첫 직장이 정규직이거나 대기업일수록 유리한 궤적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, 노동시장 격차가 성별, 학력, 가정배경, 그리고 첫 직장 진입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확인됨.

### 주

이 글은 “남재욱 외(2019), 『직업 교육과 사회이동』, 한국직업능력 개발원” 보고서 중 제4장 ‘한국의 세대 내 사회이동’ 부분을 재정리한 것임.

###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개인의 세대 내 사회이동의 양상과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 내 이행을 궤적으로 파악하여 유형화하고, 각 유형에 대한 소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필요

- 세대 내 사회이동은 한 개인의 생애동안 계층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뜻하며,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생애 내 지위이동궤적을 유형화한 분석이 필요
  - 개인의 세대 내 사회이동은 개인이 생애기간동안 어느 정도 소득 또는 지위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, 사회의 역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.
  - 세대 내 이동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들의 생애주기 내 어느 한 시점의 소득/지위를 다른 시점의 소득/지위와 비교함으로써 세대 내 이동성을 분석하였으나, 이는 생애주기 동안 연속적 변화를 스냅샷(snapshot)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어, 생애 내 이동을 궤적으로 볼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함.
  - 각각의 개인들의 생애 내 이동 궤적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, 서로 다른 생애 내 이동의 궤적을 유형으로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.
- 개인의 생애 내 이동궤적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개인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, 세대 내 이동성 격차의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음.
  - 생애 내 이동궤적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이행과 그렇지 못한 이행을 포함할 것이며, 이 때 각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무엇이 세대 내 이동성을 결정짓는지 파악할 수 있음.
  - 생애 내 이동유형에 대한 부모요인, 교육요인, 첫 직장 요인 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한국의 세대 내 이동요인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가능할 것임.



| 분석 자료 : 한국노동연구원의 「한국노동패널」 11~20차년도 조사 데이터

- 분석 자료: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1998년부터 매년 「한국노동패널조사(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; 이하 KLIPS)」를 실시하여 가구의 소득, 소비, 자산, 주거, 개인의 경제활동상태, 고용상 특성, 소득 및 소비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, 20차(2017년) 조사까지 완료하였음.
- 분석 대상: KLIPS의 11차(2008)년도~20차(2017)년 조사에 포함된 1978년~1983년 출생자 828명 중 분석 기간 내 노동시장 참여이력이 없는 123명을 제외한 70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.
- 분석 방법: 세대 내 이동의 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10년간(2008년~2017년)의 연도별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준모수적집단중심모형(semi-parametric group-based modeling)을, 개인이 각 유형에 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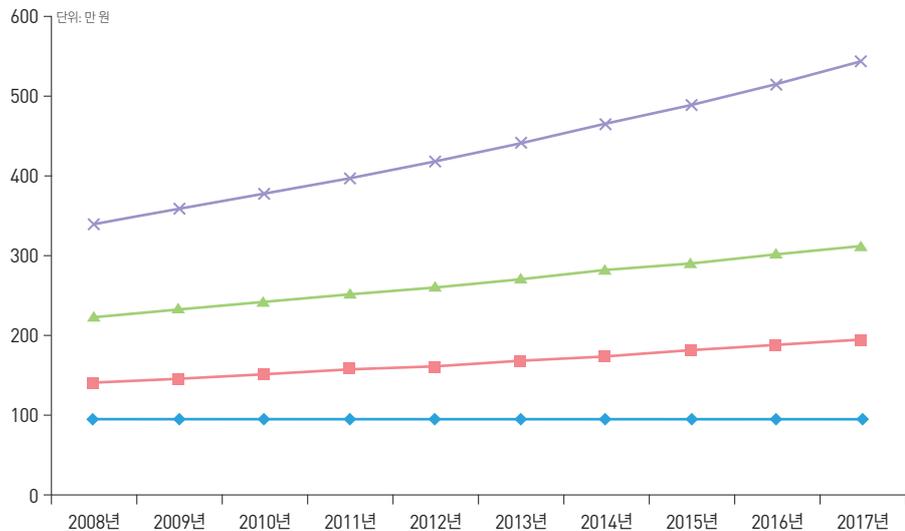
02 세대 내 사회이동 유형분석

| 한국의 청년기 세대 내 이동에는 4개의 서로 다른 유형이 나타났으며, 각 유형의 소득 격차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커지는 양상을 보임.

- 준모수적집단중심모형을 통해 4개의 잠재계층을 추출했으며, 이들의 소득이행궤적을 비교한 결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.
  - 생애 내 소득이행 유형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소득과 이후 소득변화를 기준으로 ① 초기 소득이 낮고 이후의 소득도 정체된 '낮은 정체형'(7.8%), ② 초기 소득은 낮지만 소득이 점증하는 '낮은 증가형'(41.6%), ③ 초기 소득이 중간수준이고 소득이 점증하는 '중간 증가형'(36.6%), ④ 초기 소득이 가장 높고 소득 증가폭도 가장 큰 '높은 급증형'(14.0%)으로 구분
  - [그림 1]에 나타난 것처럼 노동시장 진입 초기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득증가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확인되어, 집단별 소득의 격차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임.
  - 각각의 집단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<표 1>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일수록, 연령이 높을수록, 학력이 높을수록, 일반고 졸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출발시점의 소득이 높고 소득증가가 가파른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.
  - 성별에 따른 차이는 소득궤적 유형의 양 끝 집단인 '낮은 정체형'과 '높은 급증형'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, 낮은 정체형은 여성이 89%, 높은 급증형은 남성이 85%로 전자는 사실상 여성집단이며 후자는 사실상 남성 집단임이 확인되었음.



| 주 |  
궤적분석은 로그월소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, 이후 로그월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여 그래프를 그림.



[그림 1] 생애 내 이동 유형별 월평균 소득 궤적

〈표 1〉 생애 내 이동 유형별 집단구성 (단위: 명, %)

| 구분    |        | 낮은정체형    | 낮은증가형     | 중간증가형     | 높은급증형    | $\chi^2$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성별    | 남      | 11(3.1)  | 131(36.5) | 173(48.2) | 44(12.3) | 118.46*** |
|       | 여      | 85(24.6) | 170(49.1) | 83(24)    | 8(2.3)   |           |
| 출생 연도 | 1978년  | 24(16.1) | 48(32.2)  | 60(40.3)  | 17(11.4) | 31.26**   |
|       | 1979년  | 23(15.5) | 51(34.5)  | 62(41.9)  | 12(8.1)  |           |
|       | 1980년  | 17(12.1) | 60(42.6)  | 51(36.2)  | 13(9.2)  |           |
|       | 1981년  | 11(9.6)  | 60(52.6)  | 36(31.6)  | 7(6.1)   |           |
|       | 1982년  | 10(11.6) | 45(52.3)  | 29(33.7)  | 2(2.3)   |           |
|       | 1983년  | 11(16.4) | 37(55.2)  | 18(26.9)  | 1(1.5)   |           |
| 본인 학력 | 고졸이하   | 37(19.1) | 97(50)    | 48(24.7)  | 12(6.2)  | 31.53***  |
|       | 전문대    | 25(11.4) | 106(48.2) | 75(34.1)  | 14(6.4)  |           |
|       | 4년제 이상 | 34(11.7) | 98(33.7)  | 133(45.7) | 26(8.9)  |           |
| 고교 유형 | 일반고    | 48(10.8) | 182(40.9) | 179(40.2) | 36(8.1)  | 13.93**   |
|       | 직업계고   | 48(18.5) | 119(45.8) | 77(29.6)  | 16(6.2)  |           |

주 |  
 1) + p < .10, \* p < .05, \*\* p < .01, \*\*\* p < .001  
 2) 괄호 안은 해당 인구집단이 각각의 잠재집단에 속한 비율.

### 03 세대 내 이동유형 결정요인 분석

개인이 어느 이동유형에 속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, 부모소득, 본인학력, 첫 직장 성격으로 남성일수록, 부모소득이 높을수록, 본인학력이 높을수록, 첫 직장이 정규직-대기업일수록 더 유리한 이동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.

- 개인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궤적을 보이는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성별, 가구소득, 본인 교육서열의 유의성이 확인됨.
  - 성별은 모든 집단간 비교에서 높은 유의성을 보여,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노동시장 궤적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.
  - 결혼여부는 '낮은 증가형'과 '중간 증가형'의 관계에서만 유의했으며,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'중간 증가형'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.
  - 가구소득은 분석대상자가 노동패널에 진입한 시점의 가구소득으로 부모소득을 보여주는데,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'낮은 증가형'보다는 '중간 증가형'이, '중간 증가형'보다는 '높은 급증형'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대물림이 확인됨.
  - 교육서열은 '높은 급증형'의 경우 지방국립대 이상이거나 서울 소재 대학 이상일 가능성이, '중간 증가형'의 경우 지방국립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음.
  - 고교유형(직업계고/일반고)은 유형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문대 졸업자와 지방사립대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, 교육의 유형(직업교육/일반교육)은 교육의 서열과 달리 세대 내 이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.
- 개인의 첫 직장의 고용형태와 기업규모가 이행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변수 모두 부분적으로 유의성을 보여 첫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가 이후의 이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흉터(Scar) 효과가 확인되었음.
  - 첫 직장이 정규직일 경우 '낮은 정체형'보다는 '낮은 증가형에', '낮은 증가형'보다는 '중간 증가형' 속할 가능성이 높음.
  - 첫 직장이 대기업(300인 이상)일 경우도 '낮은 정체형'보다는 '낮은 증가형에', '낮은 증가형'보다는 '중간 증가형' 속할 가능성이 높음.
-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.
  - 가구소득이 낮고, 본인 학력이 높지 않은 개인은 '낮은 정체형'이나 '낮은 증가형'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는데, 특히 여성이 '낮은 정체형'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.
  - '중간 증가형'이나 '높은 급증형'은 낮은 두 집단에 비해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으며, 고용형태가 정규직이거나 규모가 큰 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큼.
  - '중간 증가형'과 '높은 급증형'의 차이는 남성일수록, 가구소득이 높을수록, 학력이 높을수록 '높은 급증형'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음.

〈표 2〉 생애 내 이동 유형 결정요인 분석

1) + p < .10, \* p < .05, \*\* p < .01, \*\*\* p < .001  
 2) 괄호 안의 수치는 부트스트랩 표준오차임.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낮은 정체형(기준)<br>대 낮은증가형 |            | 낮은 정체형(기준)<br>대 중간증가형 |       | 낮은 정체형(기준)<br>대 높은급증형 |         | 낮은 증가형(기준)<br>대 중간증가형 |       | 낮은 증가형(기준)<br>대 높은급증형 |         | 중간 증가형(기준)<br>대 높은급증형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계수                    | 표준 오차      | 계수                    | 표준 오차 | 계수                    | 표준 오차   | 계수                    | 표준 오차 | 계수                    | 표준 오차   | 계수                    | 표준 오차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 특성                 | 성별(기준: 여성) | 2.462***              | 0.670 | 4.125***              | 0.703   | 6.892***              | 1.071 | 1.663***              | 0.312   | 4.430***              | 0.866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연령                    | -0.077                | 0.130      | -0.006                | 0.142 | 0.022                 | 0.233   | 0.071                 | 0.092 | 0.098                 | 0.205   | 0.027                 | 0.197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결혼여부<br>(기준: 미혼)      | -1.089                | 0.459      | 0.159                 | 0.534 | 15.989                | 737.745 | 1.247***              | 0.342 | 17.078                | 737.745 | 15.831                | 737.745 |
| 귀속 요인                 | 아버지 학력<br>(기준: 중졸 이하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고졸                    | 0.064                 | 0.490      | 0.492                 | 0.535 | 0.365                 | 0.970   | 0.428                 | 0.340 | 0.301                 | 0.878   | -0.127                | 0.844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대 이상                | -0.442                | 0.903      | 0.375                 | 0.932 | -0.033                | 1.548   | 0.817                 | 0.596 | 0.409                 | 1.367   | -0.408                | 1.282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어머니 학력<br>(기준: 중졸 이하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고졸                    | -0.280                | 0.559      | -0.099                | 0.595 | -0.636                | 1.095   | 0.181                 | 0.375 | -0.356                | 0.992   | -0.537                | 0.951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대 이상                | 0.228                 | 1.417      | -0.655                | 1.459 | 1.173                 | 1.936   | -0.883                | 0.793 | 0.945                 | 1.500   | 1.828                 | 1.391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로그 가구소득               | 0.109                 | 0.268      | 0.505                 | 0.310 | 1.437*                | 0.586   | 0.397*                | 0.219 | 1.328*                | 0.541   | 0.932*                | 0.521   |
| 본인 교육 요인              | 교육서열<br>(기준: 전문대)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 4년제 이상             | 0.792                 | 1.187      | 1.687                 | 1.210 | 3.451*                | 1.506   | 0.896                 | 0.554 | 2.660*                | 1.051   | 1.764*                | 0.954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국립대 이상              | -0.588                | 0.770      | 0.383                 | 0.785 | 1.534                 | 1.228   | 0.970*                | 0.465 | 2.122*                | 1.049   | 1.152                 | 0.974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사립대                 | -0.678                | 0.608      | -0.290                | 0.651 | -0.405                | 1.173   | 0.389                 | 0.415 | 0.273                 | 1.055   | -0.116                | 1.007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고졸                    | -0.654                | 0.480      | -0.778                | 0.568 | 0.873                 | 0.942   | -0.124                | 0.408 | 1.526*                | 0.851   | 1.651*                | 0.822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고교유형<br>(기준: 일반고)     | -0.676                | 0.506      | -0.879                | 0.568 | -0.257                | 0.923   | -0.203                | 0.362 | 0.419                 | 0.808   | 0.622                 | 0.774   |
| 첫 직장 요인               | 고용형태<br>(기준: 정규직)     | 1.009*                | 0.397      | 1.976***              | 0.470 | 2.880**               | 1.065   | 0.968**               | 0.333 | 1.871*                | 1.011   | 0.903                 | 0.995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규모<br>(기준: 소상공인)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소기업                   | 0.474                 | 0.541      | 0.366                 | 0.644 | 1.011                 | 1.172   | -0.108                | 0.465 | 0.537                 | 1.078   | 0.645                 | 1.057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중기업                   | 0.136                 | 0.556      | 0.383                 | 0.647 | -15.679               | 856.348 | 0.247                 | 0.451 | -15.816               | 856.348 | -16.063               | 856.348 |
|                       | 대기업                   | 0.300                 | 0.539      | 1.274*                | 0.621 | 1.828                 | 1.147   | 0.974*                | 0.440 | 1.529                 | 1.056   | 0.555                 | 1.027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상수항                   | 3.598                 | 5.029      | -4.502                | 5.516 | -31.957               | 737.801 | -8.100*               | 3.537 | -35.554               | 737.788 | -27.454               | 737.784 |
| Pseudo R <sup>2</sup> |                       | 0.2872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#### 04 시사점

- 우리나라에서 청년기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세대 내 이동성의 제한이 큰 것으로 확인되며, 특히 여성일수록, 부모소득이 낮을수록, 학력이 낮을수록, 첫 직장이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일수록 불리한 이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.
  - 세대 내 이동의 4가지 유형은 모두 선형 패턴을 보였는데, 출발점의 소득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출발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후의 소득 증가폭도 적어 불평등이 시점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.
  - 세대 내 이동을 결정짓는 가장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이었으며, 부모소득과 개인의 교육서열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.
  - 부모소득이 높을수록, 개인의 교육이 서열구조에서 높은 자리에 위치할수록 유리한 세대 내 이동패턴을 보였는데, 개인의 교육서열에도 부모소득의 영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물림 효과가 상당할 것임을 시사함.
  - 교육서열과 달리 교육의 유형(직업계고 여부)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음.
  - 개인의 첫 직장 성격은 세대 내 이동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,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인의 노동시장 이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함.

남 재욱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